

이번주 201억원 규모 시설공사 발주

4월 첫째 주 도내에서 201억원 규모의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시설공사 내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횡계 차고지 기반조성공사(59억7,100만원) △홍제 환승주차장 외 8개소 기반조성공사(56억6,

400만원) △횡계 환승주차장 기반조성공사(46억9,700만원) △진부 환승주차장 외 11개소 기반조성공사(36억5,100만원)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의 가로등 설비 교체공사(12억1,000만원) 등이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건설협,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축소 추진

현행법 범위 661㎡→ 85㎡ 개선
무자격자 부실시공 등 해소 기대

강원도내 주택건설 현장이 개정된 건축법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축소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건축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했으며 '공사시 현장관리인 의무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건축물 신·증축시 크기에 상관없이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측이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축소를 추진, 해당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한 연면적 (661㎡·200평)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해 정식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



봄철 고객맞이 할인행사 강원도내 유통업체가 봄철 본격적인 고객 맞이에 나선 가운데 도내 한 마트가 다양한 할인 행사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신관호

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안전사고, 부실시공, 하자보수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건설협회측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85㎡ (25평)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회 관계자는 "건축법 현장관리인제 완화가 건설무면허 등록업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느정도 규모 있는 건축물 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맡기면 현장관리인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기섭 kees26@kado.net